



성명서(2매)

일시: 2024.4.1.(월) 11:00

담당: 010-4660-1409(사무국장)

과도한 가지치기로 흉물이 된 가로수, 보문호 버드나무 보존 방안 마련하라!

○ 보문호 산책로의 버드나무 37그루가 줄기만 덩그러니 남긴 채 가지를 모조리 베어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변했다. 일명 ‘닭발’ 가로수가 됐다. 연분홍 벚꽃과 어우러져 연둛빛 긴 머리를 풍성하게 드리운 수양버들의 자태를 올해는 볼 수 없게 됐다.

○ 이에 보문호를 찾은 시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. 보문호의 조경을 관리하는 경상북도관광공사에 확인 결과, 산책로의 버드나무 줄기가 많이 썩어 태풍 등 강한 바람에 부러질 위험이 있어서 ‘위험 수목’으로 지정해 5년 주기로 가지치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.

○ 그러나 ‘닭발’ 가로수가 된 37그루의 버드나무를 육안 관찰해 보니 30% 정도만 줄기가 많이 썩었고, 70%는 가지를 모두 절단해 줄기만 앙상하게 남길 정도로 위험한 상태가 아니었다. 비록 버드나무가 썩고 있어도 5년 주기로 가지를 모두 베어내는 것 외에 다른 관리 방안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.

○ 경상북도관광공사 관계자도 ‘외과수술’로 보존할 수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 가지치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. 실제로 경주시의 주요 유적지 및 마을의 오래된 보호수들은 외과수술 등의 방법으로 잘 보존하고 있다. 시민들이 늘 찾아와 휴식을 즐기는 보문호 산책로의 버드나무도 가지를 살리면서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다.

○ 이미 잘려진 나무를 다시 붙일 수는 없다. 하지만 5년 후에 또다시 보문호의 아름답디 버드나무가 ‘닭발’이 되는 잘못은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. 앞으로 10년을 잘 가꾸어 풍성하게 푸른 자태를 뽐내는 버드나무를 보고 싶다. 경상북도관광공사가 가난해서 손쉬운 가지치기밖에 할 수 없다면 경주시가 적극 나서서 보문호 버드나무 보존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. 끝.

2024. 4. 1

경주환경운동연합

#첨부: 사진 자료

□ 보문호 산책로 버드나무 훼손 현황



□ 코모도호텔 앞 버드나무 훼손 사진



□ 소노호텔 앞 버드나무 훼손 사진

